‘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

『유희창가집』을 통해 본 식민지 경성의 단면

허 지 연

1. 글을 시작하며
2. 근대 유치원 교육의 전개
 (1) 이화유치원과 중앙유치원
 (2) 식민지 조선 사회 속의 유치원 문화와 ‘유희창가’
3. 유희창가집 분석
 (1)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
 (2)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과 조선인이 편집한 유희창가집의 비교
4. 글을 맺으며

www.kci.go.kr

개 요

이 글은 1930년 이화유치원에서 출판한『유희창가집』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교육 상황의 일면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유치원 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적 함의에 대해 살펴본 후 '유희창가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브라운리가 펴낸『유희창가집』의 면면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1930년대에 출판된 다른『유희창가집』들과 비교한다.

중앙유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박봉애의『유희창가집』(1933), 차사백ㆍ이영보의『표정유희창가집』(1936)이 후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책의 외형과 음악적 내용에서 브라운리의 창가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이러한 차이를 교육자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판단하기보다, 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 교육자라는 사회적 위상과 이들이 속한 맥락의 차이와 연결시킨다.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은 마더 구스 라임과 서유럽의 전통 동요를 다수 포함하는 반면, 박봉애와 차사백의 '유희창가집'은 군가조창가 양식의 선율이 주를 이룬다. 전자가 조선인, 일본인 작곡가들의 노래를 철저히 배제한 반면, 후자는 이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이 당시 경성에서 유통된 음악 교과서나 창가집과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는 반면, 브라운리의 책은 예외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화'의 교육이 식민지 음악교육 일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맥락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의 선교사 사회와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라는 교육기관의 배타적 특수성과 맥을 같이 한다.

주제어: 유희창가, 유희창가집, 창가집, 이화유치원, 근대교육, 기독교계 학교

www.kci.go.kr

1. 글을 시작하며

19세기 후반 이 땅에 서양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이화학당은 여성교육과 음악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1886년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한 이화학당은 1910년대에 이르러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선 1910년 대학과를 열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1914년에는 이화유치원을, 1915년에는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유치원사범과를 설치하였다.[1)]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유희창가집』은 1930년에 이화유치원에서 펴낸 창가집이다. 이 책은 이화유치원을 설립한 브라운리(Charlotte G. Brownlee, 富來雲)가 직접 편집하였으며, 모두 63곡의 노래를 건반악기 반주와 사진을 곁들인 율동 설명과 함께 싣고 있다.

여기에서『유희창가집』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책은 이화유치원의 음악교육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편집자인 브라운리는 이화유치원이 문을 연 1914년 이후로 계속 이화유치원과 유치원사범과를 이끌어온 인물이기에, 이 책에는 이화유치원 16년의 음악교육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율동을 곁들인 노래 부르기인 유희창가가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의 양악교육 상황에서 ‘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가집의 분석이 유치원의 음악교육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 창가집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운

1)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편,『이화100년사』(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94), 105.

www.kci.go.kr

영된 이화의 교육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단순한 '재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사를 동반하며 놀이와 함께 반복해서 불리는 노래는 어린이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세계관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이 책에 수록된 곡의 음악적 특징과 가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이에게, 보다 넓게는 조선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선교사이자 유아교육자인 브라운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편집한 책이기에, 더더욱 그들의 교육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유희창가집』의 구성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 수록곡의 성격과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다음, 그것을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출판된 다른 '유희창가집'과 비교할 것이다. 비교를 통해 이화유치원에서 펴낸『유희창가집』의 특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경찬의『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2]에 따르면, 1945년 이전 '유희창가집'이라는 제목으로 경성에서 출판된 창가집은 모두 5권이다. 이들을 출판년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부래운.[3]『유희창가집』. 경성: 이화유치원, 1930.
2. 박봉애.『유희창가집』. 경성: 이화보육학교, 1933. (1937년 재판발행).
3. 차사백 · 이영보.『표정유희창가집 제1편』. 경성: 중앙보육학교, 1936.
4. 차사백 · 이영보.『표정유희창가집 제2편』. 경성: 중앙보육학교, 1936.
5. 차사백 · 이영보.『표정유희창가집 제3편』. 경성: 중앙보육학교, 1937.

필자는 위에 소개한 5권의 창가집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

2) 민경찬,『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한국예술종합학교, 1997).

3) 부래운(富來雲)은 브라운리의 한자 표기이다.『유희창가집』에 편집자의 이름이 부래운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책과 함께 소개할 때는 '부래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브라운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www.kci.go.kr

는 1, 2, 3, 4번 네 권의 실물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보육학교에서 활동하였던 교사들이 편집하였다. 2번의 경우 이화보육학교에서 출판되기는 하였으나, 창가집의 서문에는 “1933년 중앙보육학교에서 박봉애 씀”이라는 서명이 붙어 있어 이화유치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 필자는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과 박봉애의『유희창가집』, 차사백ㆍ이영보가 편집한『표정유희창가집 제2편』의 수록곡들을 비교할 것이다. 이화유치원에서 펴낸 창가집과 중앙보육학교의 교사들이 펴낸 창가집은 실제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기술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차이를 낳은 배경을 유추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선교사가 세운 여성교육기관인 ‘이화’가 당시 조선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가를 부분적으로나마 조명하고,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근대 유치원 교육의 전개

이 땅에 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개항장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거류지에서였다.[4] 1888년 설립된 원산유치원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일본인을 위한 최초의 유치원으로, 설립자는 일본인 원산거류민단이었다.[5] 김형목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이화유치원이 문

4)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한국민족운동사학회』28 (2001), 123.

5) 이상금,『한국근대유치원교육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84-85.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 123에서 재인용.

www.kci.go.kr

을 여는 1914년 당시 일본인 유치원은 14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수는 남자 413명, 여자 401명으로 거의 동수를 이루었다.[6]

반면 조선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은 1910년대에 시작되었다. 1910년 밀양민의소가 설립한 '밀양유치원'을 시작으로, 이후 10년 동안 다수의 유치원이 전국에 걸쳐 설립되었다.[7] 이중에서 서울지역의 유치원과 그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경성유치원(1913), 이화유치원(1914), 정신유치원(1915), 중앙유치원(1916), 배화유치원(1917), 덕수궁유치원(1917), 아현유치원(1918) 등이 있다.

이 중 최초로 문을 연 경성유치원은 고위 관료와 실업가들의 주도로, 총독의 지원 하에 1913년 개원하였다. 일본인 보모를 고용하고 일본어로 교육하였으며, 유치원의 원장은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장인 일본인이 겸임하였다. 학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나 보육료를 볼 때, 극소수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한 '귀족유치원'이었다. 개원 당시 원아 수는 30명이었는데, 남 23명, 여 7명으로 남자 원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8]

이 시기에 설립된 조선인 유치원은 밀양유치원, 경성유치원, 덕수궁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교회 또는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대부분 여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육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음을 볼 수 있다.

---

6)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 124의 <표 1> 참조.
7)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 126의 <표 2> 참조.
8)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 129-32.

www.kci.go.kr

⑴ 이화유치원과 중앙유치원

1907년 이화학당의 제4대 당장으로 취임한 프라이(Lulu Emma Frey)는 ‘이화’가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틀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과’의 설치와 이화유치원 및 유치원사범과의 설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9]

이화유치원의 본격적인 역사는 브라운리가 1913년 12월 입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녀는 신시내티 보육학교(Cincinnati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졸업반이던 1912년에 안식년 휴가차 미국으로 귀국한 프라이 당장에 의해 선발되어, 이화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브라운리는 조선에 도착한 직후인 1914년 1월 7일 이화학당에 인접한 손탁호텔[10]의 한 방에서 원아 16명을 모아 놓고 이화유치원을 개원하였다.

브라운리와 함께 조선인인 조앨리스가 통역 겸 보조교사로 원아들을 지도하였다. 당시 조앨리스는 이화학당 중등과를 나온 이후, 수년간 보통과에서 가르치다가 일본 감리교 선교부 재단의 갓수이 여자전문학교[11]에 유학하여 유치원 교육을 공부 중이었다. 이듬해 그녀는 1915년 개설된 2년 과정의 유치원사범과[12]에 입학하여 1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마쳤다.

---

9) 이화유치원의 이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편,『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 (1915-2001)』(에듀엔젤닷컴, 2001), 3-17을 참고하였다.

10) 정동에 위치하며, 러시아 공사였던 웨베르의 처형인 손탁(Antoniette Sontag, 孫澤, 1854-1925)의 활동무대였다. 러시아가 물러난 후 이화학당에서 구입하여 교사와 기숙사로 활용하였는데, 후일 이 자리에 프라이 홀이 세워진다.

11) 당시 같은 감리교 재단에 속했던 갓수이 여자전문학교에는 많은 이화학당 졸업생이 여러 전공에서 유학 중이었다.

12) 유치원사범과는 ‘kindergarten training school’의 번역어로, 갓수이 여자전문학교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유치원사범과가 ‘보육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1928년 이후이다.

www.kci.go.kr

<사진 1> 브라운리와 유치원 사범과 1회 졸업생 조앨리스, 2회 졸업생 허마그렛(뒷줄 왼쪽이 조앨리스)[13]

브라운리 이후 두 명의 미국 출신 유아교육 전문가가 내한하여 이화의 지붕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1918년 브라운리의 안식년 휴가 즈음하여 입국한 밴플리트(Edna Marie VanFleet)와 1923년 개성에 부임한 하워드(Clara Howard, 許吉來, 1895-1995)가 그들이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본과 미국의 외교가 악화되어 조선을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20년 이상을 머물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하워드는 해방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64년 3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장장 40년 7개월의 한국 선교사 생활을 지속하면서 유아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한편 중앙유치원은 이화유치원보다 2년 늦은 1916년 개원하였다. 영신학교 교감 박희도와 중앙예배당 목사 장낙도, 중앙이발소를 경영한 유양호 등 세 명이 주축이 되어 인사동에 위치한 영신학교 분교실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14] 이들은 모두 중앙교회[15]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

13)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 (1915-2001)』, 화보.
14) 김형목, “중앙유치원의 근대 유아교육사상 위상,” 『중앙사론』 32 (2010), 112-113.

www.kci.go.kr

다. 중앙유치원은 처음부터 정동에 위치한 이화유치원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출발하였다. 초대 원장은 이화학당의 프라이 당장이 맡았으며, 브라운리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유치원과 연계된 유치원사범과는 1922년 9월 설립되었으며, 이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중앙유치원이 이화유치원의 협조 하에 문을 열었다는 점은 식민지 조선의 교육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조선인 기독교 신자가 이끄는 사립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유치원의 초대 원장을 프라이 이화학당장이 맡았다는 사실은 두 기관 사이의 밀착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 박봉애의『유희창가집』이 이화보육학교에서 출판된 사실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화학당의 유치원사범과와 중앙유치원 부설 유치원사범과는 1928년 각각 이화보육학교와 중앙보육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⑵ 식민지 조선 사회 속의 유치원 문화와 ‘유희창가’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20‧30년대’에 주목한다. 이들은 당시 매체의 분석을 통해 이 시점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적’ 일상이 형태를 갖추는 시기임을 밝혀준다.[16]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현대적 징후 중에 ‘신’ 여성을 양성하는 여성교육기관의 존재와 ‘몸’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혹은 방식이 포함되는데, 유치원와 유희창가의 존재는 이들 징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15) 1910년 창설된 중앙교회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인 종로2가에 자리 잡았다. 이런 이유에서 평신자 중에 종로 상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대신문사 편,『사진으로 보는 중앙대학교 80년사』(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29.

16) 예를 들어 김진송,『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9-19 참조.

www.kci.go.kr

여성과 어린이[17]는 이 사회의 '타자'라는 점을 공유한다. 전통적인 조선사회는 이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성인 남성에 봉사하는 또는 그들 앞에서 숨죽여야 하는 존재로 취급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복적인' 공간이었다. 유치원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어린이들과 젊은 여교사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다.

유치원이 지닌 사회적 함의는 당시 매체에 유치원에 대한 기사가 꾸준히 등장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적어보면, 『동아일보』 1921년 9월 6일자는 "유년 교육의 신기관"에서 이화유치원의 새로 완성된 독립 건물을 소개하였고, 1924년 3월 31일자는 "천사들의 낙원, 유치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경성 내의 아홉 유치원을 다루었다. 또한 1929년 3월 4일자는 "이십세기는 아동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중앙유치원 최신도의 칼럼을, 『조선일보』 1929년 4월 21일자는 "어린이들의 낙원을 차저서—시내 각 유치원 방문기 9회"에서 이화유치원 하복순의 인터뷰를 실었다.

위에 소개한 기사들 중 "천사들의 낙원, 유치원 사업"의 앞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경성 내의 아홉 유치원 — "어린이 갓지 않으면 결단코 텬국에 드러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예수의 말이오 "어린애의 나라는 텬사의 나라니라" 하는 말은 "요한스에스"의 말이다. 얼마나 어린애의 시대가 귀여웁고 따라서 그 시대가 중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업다. 이러한 어린아해를 친절히 가르치고 정성껏 붓들어 장래의 아름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유치원 사업은 실로 의미잇고 가치잇는 사업이며 신성한 사업이다. 그

17) '어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으로, 소파 방정환(1899-1831)이 『개벽』 3호에 발표한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를 통해서이다.

www.kci.go.kr

> 러면 이러한 사업이 경성 안에 얼마나 잇서서 우리의 어린 텬사들을 잘 기르고 잇는가. 유치원이 도합 아홉 곳으로 련동유치원, 중앙유치원, 태화유치원, 수표교유치원, 삼광유치원, 남대문유치원, 배화유치원, 안국동 유치원, 리화유치원 등이다. (이하 생략)[18]

율동과 함께 하는 노래라는 뜻의 ‘유희창가’는 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신체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문적인 춤이나 노래는 모두 조선 사회가 천민들에게 부여한 몸놀림이며, 적어도 양반들에게는 점잖은 낮의 세계에 허락되지 않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수업의 일부로 유희창가를 즐겼고, 유치원 보모를 양성하는 유치원사범과의 여학생들은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율동을 익혔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유희창가는 유치원의 담장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 매체에 보도된 다수의 공연 중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1925년 1월에는 ‘중앙기독청년 주최 유치연합가극’이 열려, 여러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표정유희, 유희창가, 연설, 독무, 대화창가 등을 선보였다.[19] 또한 1927년 5월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소년소녀연예대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유희창가, 무도, 독창, 피아노 독주, 합창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20]

1924년 7월 7일『동아일보』에 실린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諸氏께”라는 홍난파의 칼럼에도 유희창가가 언급된다. 여기에서 홍난파는 “그럿키로서니 소위 전문적 연주자—나는 음악전문가를 의미해 말한 것임니다—를 청해다 놋코 색동저고리 소년소녀의 창가유희라던가 […] 속가류를 부르게한다는 것이 무슨 失態임닛가”[21]라고 통탄하고

18) “천사들의 낙원, 유치원 사업,”『동아일보』1924년 3월 31일.

19)『동아일보』1925년 1월 29일.

20)『동아일보』1927년 5월 5일.

21) 이수정, “일제시대 동아ㆍ조선일보 음악기사 음악평 (1920~1929),”『민족음악의

www.kci.go.kr

있다. 홍난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1920년대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 중 다수가 '전문' 음악가의 연주와 어린이들의 유희창가, 대중가요를 함께 제공하는 버라이어티 쇼의 구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의 유희창가는 단순히 유치원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질 뿐 아니라, 새로운 도시문화의 하나로 조선 사회에서 향유되었다.

3. 유희창가집 분석

⑴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

1930년 출판된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은 '유희창가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최초의 창가집이다.[22] 이전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가집은 국가 기관에서 펴낸 교과서용 창가집과 개인이 펴낸 창가집 등 이미 여러 권이 출판되었다.[23] 이 중에서 수석조가 펴낸『(소년소녀) 교육유행창가집』(1927)은 보통학교와 유치원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묶은 것으로 유치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가집이다. 유희창가집이 이러한 창가집들과 가장 다른 점은 율동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점이다.

『유희창가집』의 첫 곡인 <인사노래>의 율동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해』 3 (1994), 385-428.

22) 민경찬,『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14.

23) 이들 창가집 중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은 다음의 5권을 소장하고 있다. 대한제국 학부 편,『(보통교육) 창가집』제1집 (한국정부인쇄국, 1910); 수석조 편,『(소년소녀) 교육유행창가집』(이문당, 1927); 이상준,『최신창가집, 全』(박문서관, 1918); 이상준,『(풍금독습) 중등창가집』(박문서관, 1921); 조선총독부 편,『(보통학교) 보충창가집』(조선서적인쇄, 1926).

www.kci.go.kr

[방법] 단원을지여서 가운데를향하야서고
잘왓니반갑다.....두번허리굽혀인사하고
재미잇게놀아보자.....박자에맛초아손벽치고
잘왓니반갑다.....두번허리굽혀인사하고
참조흔날일세.....박자에맛초아손벽치고
(이하 생략)[24]

『유희창가집』이 보여주는 위와 같은 설명 방식은 뒤에 나오는 유희창가집에서도 큰 차이 없이 유지된다. 브라운리가 펴낸 『유희창가집』의 실물을 접한 첫인상은 이 책이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창가집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고급’이라는 점이다. 책의 크기, 사용된 종이의 질, 인쇄의 정밀함 등 모든 점에서 다른 창가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31년 『동광』 17호에 실린 『유희창가집』의 광고는 이 점을 잘 홍보하고 있다.

<사진 2> 1931년 『동광』 17호에 실린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 광고

24) 부래운, 『유희창가집』, 2.

www.kci.go.kr

미쓰, 뿌라운 先生 著
遊 戱 唱 歌 集
菊判倍判洋裝 總監布衣金字入 寫眞數十枚入
(국판배판양장 총감포의금자입 사진수십매입)
定價二圓 書留送料 二十六錢[25] (정가2원 서류송료 26전)

2원이라는 가격은 후에 출판되는 유희창가집이 1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두 배에 이르지만, 실제 제작비를 염두에 둔다면 두 배의 차이가 적어 보일 정도이다. 우선 책의 크기 자체가 당시 일반적인 창가집의 판형인 국판에 비해 두 배 크며, 교육용 노래책에 사진을 실은 예는 조선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출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 조선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이화유치원에 두터운 기부를 주어 이 책을 발행케 한 메레이. 힐문(Mary E. Hillman) 부인에게 간곡한 사의를 표해 둔다"[26]는 언급을 통해, 이 책이 제작비에 대한 고민 없이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창가집의 표지를 열면 26명의 어린이들의 작은 사진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안에 "드리는 말삼—노래와 遊戱로 깃븜을 엇으라고 朝鮮의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드림니다"라는 헌사가 나온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30년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디자인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 한 페이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이 이화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25) 김수현 · 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잡지편 권3 (1930~1932)』 (민속원, 2009), 402.
26) 부래운, "머릿말," 『유희창가집』.

www.kci.go.kr

<사진 3>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헌정사

창가집의 경우 악보를 나열하기에 앞서 머리말과 목차 등을 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은 이 부분을 조선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바이링구얼’(bilingual)로 처리하였다. 가장 먼저 청년 교육가로 활약하였던 현제 김창제(弦齊 金昶濟)[27]의 ‘序’(서)가 나오고, 브라운리가 쓴 조선어 머리말과 목차가 제시된다. 뒤를 이어 영어로 ‘dedication’(헌사), ‘contents’(목차), ‘foreword’(서문)가 한 차례 더 등장한다.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증거들이 ‘이화’라는 선교사들의 교육기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짚고 넘어간다.

다음 <사진 4>는 창가집의 한 페이지를 옮겨온 것이다.[28]

27) 현제 김창제(弦齊 金昶濟, 1881-1947)는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교육과 신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일평생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과 저술을 통해 활동하였던 청년 계몽의 교육 운동가였다. http://blog.naver.com/ykdjmail/150111631495 (2011. 8. 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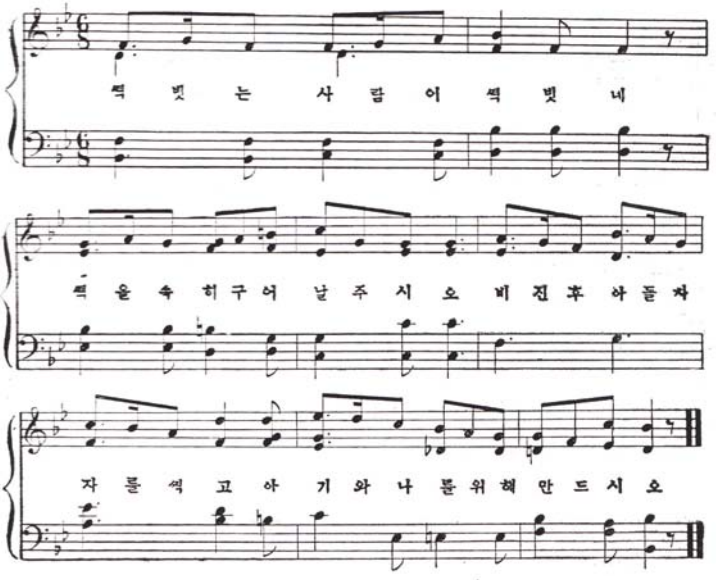
28) 부래운,『유희창가집』, 8.

www.kci.go.kr

<사진 4> 브라운리의『유희창가집』8쪽

PAT - A - CAKE

떡 빗 는 사 람



【구 성(構成)】 중원을만드러서서되 안줄아해는 밧줄아해를형하야서고 밧줄아해는안줄아해를형하야서로대면할것

떡빗는……마조
사람이……서로
떡빗네……마조
떡을속히구어
날주시요…원편

비즌후……두손
아들자자를썩고

아기와나를위해

만드시오…두손

선아해와손벽을세번치고
인사한후에
선그대로각々자긔손을세
번치고
손에다그릇을든것갓치팔
을구부려원을만들고 바
른손으로는 떡반죽을젓
는모양으로팔을둥굴게젓
다가
으로떡빗는모양을하고
왼손을펴서들고바른손
을 왼손바닥에다대고썩
는모양을하고
바른손부명지로 압사람
을가라친후에는 손을펴
서제가삼에댓다가
을다갓치펴서각々내밀것

www.kci.go.kr

먼저 노래의 제목이 영어와 한글로 제시되어 있으며, 곡의 출처에 대한 설명은 없다. <떡빗는 사람>이라는 한글 제목을 갖는 노래의 가사는 <Pat-A-Cake>[29]이라는 잘 알려진 마더 구스 라임(Mother Goose rhyme)[30]을 번안한 것이다. 외국곡과 마더 구스 라임의 사용에 대해 브라운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이 노래에 곡보 등은 거의 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도 배홧고 또한 배호는 곡조 등이다. 이 노래 중에는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더꾸-쓰(Mother Goose)의 이야기에서 옴겨온 것이 만치만은 이 노래를 친히 쓴 머더꾸-쓰(Mother Goose)일지라도 조선말노 옴겨 노흔 것을 볼 때에는 자기가 지엇든 것인 줄도 알지 못할 줄 안다.[31]

위의 설명대로 이 창가집에 실린 곡들은 대부분 서양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노래들이다. 전체 63곡 중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은 모두 30곡인데, 영국곡이 8개, 독일곡이 5개, 스웨덴곡이 4개, 스코틀랜드곡이 2개, 프랑스곡이 2개, 미국곡이 2개, 아일랜드곡이 1개 등 매우 ‘국제적인’ 동시에 ‘비-동양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절반 정도가 영어권의 전통적인 어린이 문헌인 마더 구스 라임을 번안한 가사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출판된 유치원 노래책의 체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32]

---

29) 영어 라임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at-a-cake, pat-a-cake, baker’s man; Bake us a cake as fast as you can; Mix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Put it in the oven for baby and me.

30) ‘마더 구스’는 가상의 동시 작가의 이름으로, 시골 아낙의 복장을 한 여성 또는 거위의 얼굴을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이후로 마더 구스 라임 모음집이 꾸준히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Mother_Goose. (2011. 08. 19. 검색).

31) 부래운, “머릿말,”『유희창가집』.

www.kci.go.kr

이와 같은 창가집의 구성을 통해 우리는 이화유치원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브라운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이화'의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어린이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침이 단순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답습한 것인지 혹은 서양 문화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의도적 선택이었는지는 또 다른 연구과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식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동일하다. 한편 이화의 어린이들은 서양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백인 선생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조선인 선생님과 함께 향유하면서, 자연스레 서양의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마더 구스 라임에는 20세기 초의 경성에는 낯선 풍경들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실내에 계단이 있는 이층집, 잠옷을 입은 소년, 사현금(바이올린)을 켜는 영감, 런던에 사는 여왕,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동물, 춤추는 송아지 등이 그 예이다.

노래의 번안은 시의 번역과는 또 다른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문학적으로 잘 번역된 시일지라도 선율에 붙여 부를 때, 노래의 프레이징과 일치하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창가집의 마더 구스 노래들이 보여주는 번역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사의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① <Hickory Dickory Dock / 적은흰쥐>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32) 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도서관에서 브라운리가 소장하였던 유치원 노래집 두 권을 발견하였다. Hollis Dann, *First year music: rote songs for kindergarten and first year* (American Book Company, 1914); Frances Danielson & Grace Conant, *Songs for little people for use in the sunday-school the kindergarten and the home*. (Boston: The Jordan and More Press, 1915). 노래 중 일부에는 한글 번역 가사가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있다.

www.kci.go.kr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Hickory, dickory, dock.[33]

고요한밤 흰쥐가 살근이
시계 겻헤 갈때에
한점 땡치니
놀라 도망간다
적은흰쥐 혼낫다.[34]

라임의 번역은 이처럼 원본의 줄거리를 유지하면서 의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의 예는 원본 보다 번역본의 묘사가 더 극적인 좋은 번역의 예이다. 영어 가사의 노래가 6/8박자인데 반해 조선어 노래는 2/4박자인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가사의 리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더 구스 라임의 경우 영어권 내에서도 가사와 선율의 결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라임이 몇 가지 선율로 불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창가집의 노래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창가집에 수록된 마더 구스 라임에 기초한 창가 중 절반 정도가 영어권의 노래와 다른 박자와 리듬으로 되어 있다.[35]

② <Goosey, Goosey, Gander / 오리오리색기>

Goosey goosey gander where shall I wander,
Upstairs, downstairs and in my lady’s chamber,
There I met an old man who wouldn’t say his prayers,

33) Hollis Dann, *First year music: rote songs for kindergarten and first year*, 59.
34) 부래운,『유희창가집』, 9.
35) 마더 구스 라임을 가사로 하는 영어권의 노래 대부분을 유튜브(http://kr.youtube.com)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이나 악보로 검색할 수 있었다.

www.kci.go.kr

I took him by the left leg and threw him down the stairs.[36]

오리오리색기 너어대로 가니
웃층에혹 아래층혹 마님방에 가니
웃층으로 올나가자 웃층으로 올나가자
층층대를 발부면서 웃층으로 가.[37]

위의 가사는 “노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는 원본의 가사를 삭제하다보니, 조선어 가사에 긴장이 줄어든 예이다. 이 라임의 경우 영어권의 노래와 창가집의 노래가 거의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③ <Mary Quite Contrary / 곱단이>

Mary Mary quite contrary,
How does your garden grow?
With silver bells and cockle shells
And pretty maids all in a row.[38]

말안듯는 곱단이야
동산에 꼿잇니
진달네와또 개나리꼿
입분꼿들이 잇지.[39]

‘Mary quite contrary’를 ‘말안듯는 곱단이야’로 번역한 센스가 돋보인

36) 북타임 편,『마더구스』(북타임: 지식여행, 2010). 이 책은 1881년 런던과 뉴욕에서 출판된 *Mother Goose or the Old Nursery Rhymes*을 한국에서 재발행한 것이다.
37) 부래운,『유희창가집』, 5.
38) Sylvia Long, *Mother Goose*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9), 15.
39) 부래운,『유희창가집』, 14.

www.kci.go.kr

다. 곱단이의 동산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핀 조선의 동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영어 라임의 번역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선의 정서와 풍경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가집의 음악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 한 곡을 제외한 모든 곡이 건반악기 반주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유희창가집』 이전에 조선에서 발행된 창가집은 일반적으로 반주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에 발간된 유희창가집에서도 반주가 붙은 곡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브라운리가 소장하였던 두 권의 미국 노래집에도 반주가 붙지 않은 노래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브라운리를 비롯한 교사들이 건반악기(피아노 혹은 오르간)의 사용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피아노 혹은 오르간이 지니는 ‘근대성’의 함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록곡의 음계를 보면, 거의 모든 곡이 ‘도’에서 종지하는 장조 계통의 음계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도법 솔미제이션(solmization)으로 표현할 때 ‘[도]-레-미-파-솔’[40]의 펜타코드(pentachord), ‘[도]-레-미-파-솔-라’로 이루어진 헥사코드(hexachord)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으로 이루어진 장음계가 고루 사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은 서양 여러 나라의 민요 선율과 마더 구스 라임을 가사로 하는 노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사의 번역에 공을 들여 창가의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였으며, 노래의 가사에 조선의 풍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반면에 음악적인 면에서는 조선 전통음악의 흔적(선법이나 장단)이 발견되지 않는다.

40) ‘[도]-레-미-파-솔’ 음계는 이동도법 솔미제이션으로 도, 레, 미, 파, 솔의 다섯 음으로 이루어지고 ‘도’에서 종지하는 음계를 가리킨다.

www.kci.go.kr

⑵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과 조선인이 편집한 유희창가집의 비교

조선인이 편집한 유희창가집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은 박봉애의 『유희창가집』과 차사백 · 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1, 2집이다. 이들은 모두 중앙보육학교의 교사들이 펴낸 창가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시기적으로 박봉애의 창가집은 1933년, 차사백 등의 창가집은 1, 2권이 모두 1936년에 출판된 것으로 브라운리의 창가집보다 각각 3년, 6년 후에 출판되었다. 이들 창가집들은 모두 국판 크기이며 조선에서 출판된 교육용 창가집과 비슷한 겉모습을 갖는다. 악보와 율동 설명 이외에는 몇 장의 삽화가 들어 있는 것이 전부로, 브라운리의 창가집에 비하면 초라한 외형이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브라운리의 창가집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은 일본의 "군가조창가"[41]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청일전쟁(1894-5)을 전후해서 서양식 군가가 왕성하게 만들어졌다.[42] 이러한 군가는 이전의 학교 창가들이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과는 달리, 대중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43] 군가 붐은 러일전쟁(1904-5)까지 계속되었고, 청일전쟁 때 보급된 군가를 묶은 군가집이 일본 전역의 학교에서 창가 교재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선, 중국, 대만 등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들 군가조창가의 음악적 특징은 '요나누키 장음계'의 사용과 '점8분음표+16분음표'의 부점 리듬이 빈번히 등장하는 2/4박자에 바탕을 둔다는 점이다. 유희창가집의 수록곡 중에서 요나누키 장음계[44]로 이

41) 安田寛(야수다 히로시)는 군가 양식의 창가를 "군가조창가"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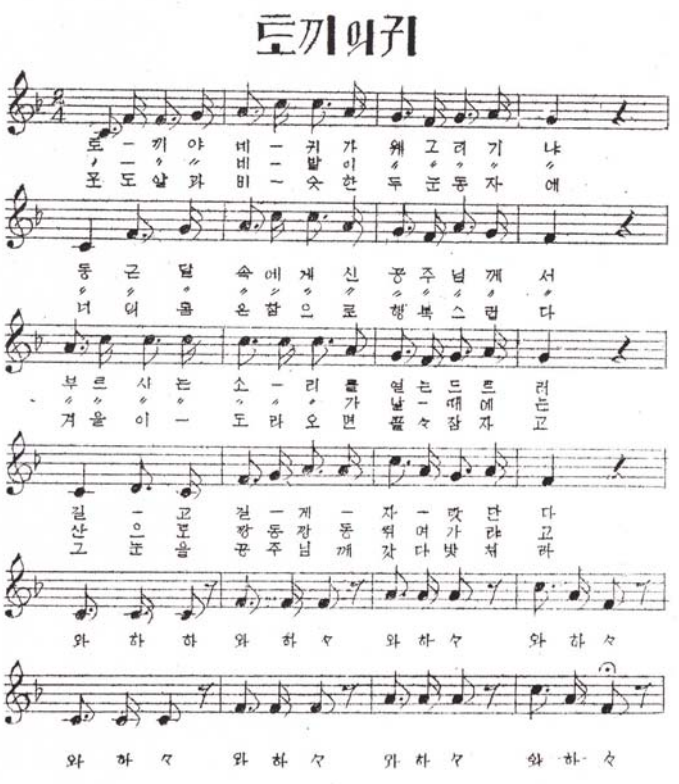
42) 安田寛, 『日韓唱歌の原流』 (東京: 音樂之友社, 1999), 130-131.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사회사: 일제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 『낭만음악』 49 (2000), 48에서 재인용.

43) 야마우치,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사회사: 일제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 47-49.

www.kci.go.kr

루어진 노래를 살펴보면, 박봉애의 창가집의 경우 요나누키 장음계로 이루어진 노래가 절반에 이르며, 차사백의 창가집에서는 약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창가 중 군가조창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를 소개하면 아래 <사진 5>의 악보와 같다.

<사진 5> 군가조창가의 모습이 보이는 유희창가[45]



44) ‘요나누키 장음계’는 ‘[도]-레-미-솔-라’로 구성된 5음음계를 가리킨다.

45) 차사백, 『표정유희창가집』 제2편 (중앙보육학교, 1936), 18.

www.kci.go.kr

한편 브라운리의 창가집은 요나누키 장음계로 된 선율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과 구분된다. 브라운리의 창가집에 실린 노래들은 장음계의 일곱 음 보다 적은 수의 음을 사용할 경우 '[도]-레-미-파-솔' 또는 '[도]-레-미-파-솔-라'의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 박봉애의 『유희창가집』, 차사백 · 이영보의 『표정유희창가집』 2집의 수록곡의 박자를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정유희창가집』의 1집을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1집과 2집이 1936년 같은 해에 출판되어 전체적인 구성이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1집의 경우 수록곡의 수나 책의 편집 면에서 2집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유희창가집에 수록된 노래의 박자 비교 표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63곡)	박봉애의 『유희창가집』(31곡)	차사백의 『표정유희창가집』 2집 (66곡)
2/4박자	26곡	20곡	48곡
4/4박자	14곡	7곡	14곡
3/4박자	8곡	3곡	4곡
6/8박자	14곡	0곡	0곡
기타	12/8박자, 1곡	2/2박자, 1곡	2/2박자, 1곡

위의 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에 6/8박자의 노래가 한 곡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2/4박자 노래의 경우 브라운리의 창가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에서는 2/3에 해당할 정도로 집중되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수록곡들의 작곡가를 살펴보면,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의 경우 일본인, 조선인 작곡가의 노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브라운리의 창가집과 구별된다. 브라운리의 창가집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양 여러 나

www.kci.go.kr

라의 민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곡가의 이름이 제시된 예는 피어폰트(J. Pierpont) 작곡의 <Peter Pan / 순남이> 한 곡뿐이다. 반면에 박봉애의 창가집 수록곡 중 작곡가의 이름이 제시된 것은 모두 8곡으로, 이 중 일본인이 작곡한 노래가 7곡이며 조선인이 작곡한 노래는 윤석중 작사/정순철 작곡의 <애기 행진곡>[46]이다. 차사백의 창가집에는 일본인 작곡가의 노래가 5곡, 조선인 작곡가의 노래가 8곡 포함되어 있다. 조선인 작곡가로는 권태호, 박태준, 윤극영의 노래가 실려 있다.

유희창가집들이 출판된 것이 1930년대임을 고려한다면, 조선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희창가집에 조선인 작곡가의 노래가 포함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다. 조선인 작곡가에 의한 창작동요가 1920년 이후 꾸준히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창작동요는 1920년 박태준이 작곡한 <가을밤>, <꽃봉투>, <가을> 등이다.[47] 이 노래들은 1929년 박태준의 창작동요집인『중중 때때중』이 발간된 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26년에는 윤극영의『반달』이 출판되었으며, 1929년에는 홍난파가 편집한『조선동요백곡집』(상)과 정순철의 작품집인『갈잎피리』가 출판되는 등 이미 1920년대에 창작동요가 지속적으로 작곡, 출판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리의 창가집 수록곡이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화유치원과 중앙유치원이 출발단계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두 유치원이 모두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창가집의 수록곡들 사이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브라운리의 창가집의 재료가 나머지 창가집에 실려 있는 경우는 단 두 사례뿐이었다.

먼저 브라운리의 창가집에 <동글동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46) ‘엄마 앞에서 짝짜궁 압빠 앞에서 짝짝궁’으로 시작하는 노래이다.

47) 민경찬 외,『동아시아의 서양음악의 수용』(음악세계, 2008), 95.

www.kci.go.kr

마더 구스 라임인 <Diddle Diddle Dumpling>이 박봉애의 창가집에 다른 번역에 다른 선율로 실려 있다. 다음으로 차사백의 창가집 2집에는 브라운리의 창가집에 포함된 <적은흰쥐>의 선율에 다른 가사를 붙인 <달밤의 토끼>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다. 지금까지의 비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운리의 창가집은 서양의 민요와 선율에 기초한 노래로 구성된 반면,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은 조선의 학생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군가조창가를 과반수 포함한다. 둘째, 브라운리의 창가집에서 다수 발견되는 6/8박자 노래가 박봉애와 차사백의 창가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전자가 조선인, 일본인 작곡가들의 노래를 철저히 배제한 반면, 후자는 이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박봉애와 차사백의 유희창가집의 수록곡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사용된 창가 교과서와 개인이 출판한 창가집 수록곡의 특징을 공유하는 반면,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은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즉 전자가 일제강점기 조선이라는 맥락을 반영하는 반면, 후자는 이들과 다른 맥락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글을 맺으며

미국인 선교사이자 이화유치원과 이화보육학교에서 활동한 브라운리가 펴낸 『유희창가집』과 조선인 유아 교육자이자 중앙유치원과 중앙보육학교에서 가르친 박봉애와 차사백, 이영보가 펴낸 『유희창가집』은 위에서 보듯이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후자가 조선 사회의 여타 음악 교재들과 유사성을 보여준다면, 브라운리의 창가집은 ‘예외적’이다.

www.kci.go.kr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 필자는 조선 사회 내에서의 미국 선교사 사회의 배타성과 물질적 풍요로움, ‘이화’라는 여성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차이의 배경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화유치원과 중앙유치원은 ‘기독교’와 ‘유치원’이라는 굵직한 사항을 공유하며, 특히 중앙유치원의 설립에 이화유치원과 브라운리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기관 사이의 유대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희창가집의 분석은 미국인이 주도하는 기관과 일제 식민지를 살아가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기관 사이에 ‘단절’이라 부를만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경성에 자리 잡은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일반적인 조선사회와는 동떨어진 외국인 거주지에 터전을 마련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운 사실을 볼 수 있다.[48] 이화학당이 처음 정동에 설립된 것도 이곳이 미국 영사관, 러시아 영사관, 독일 영사관, 감리교 교단 소속의 배재학당, 장로회 등이 밀집한 외국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화’가 정동을 떠나 신촌으로 이사한 것이 1935년이므로, 브라운리가 『유희창가집』을 펴낼 당시 이화보육학교는 여전히 정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25세부터 30세 사이의 중산층 젊은이들이었다.[49] 이들은 종교적 열정에 불타 낯선 땅에서의 선교적 삶을 선택하였으며, 신학이나 의학, 교육 분야의 대학교육을 받은 ‘반듯한’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활동하게 될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였으며, 눈으로 목격한 조선인들의 생활상은 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50]

당시 선교사들의 집은 다양한 외국 수입품 자재로 지어졌으며, 집안

48) 정충량, 『梨花八十年史』 (이대출판부, 1967), 55-57.

49) 김사랑, “내한 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 1884년에서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7), 20-25.

50) 김사랑, “내한 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23.

www.kci.go.kr

에는 재봉틀, 발전기, 석유난로, 오르간, 벽난로, 양탄자, 흔들의자 등 조선 사회에서는 쉽게 구경할 수 없는 물건들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된 식재료들, 예를 들어 설탕, 버터, 훈제 육류, 오렌지 등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초기 선교사인 매티 노블(Mattie W. Noble, 1872-1956))은 “우리는 고향에서 먹는 거의 모든 음식뿐 아니라 독특한 원주민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51]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가 생활에서도 미국의 중산층적 삶을 재현하였다. 테니스가 선교사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어, 선교사 거주 지역에는 훌륭한 테니스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선교사 부인들을 주축으로 테니스 열기가 대단하여, 선교사 사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또한 ‘멋지고 세련된’ 다과회가 자주 열렸는데, 한 미혼 여선교사는 이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52]

조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길을 떠나고, 미국적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초기 선교사들의 상황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22년 개성에 부임해 유치원 교사로 조선 선교를 시작한 클라라 하워드는 자서전에는 벤쿠버-요코하마-고베-부산을 경유한 긴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한 첫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서울역에서 내가 처음 본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잊을 수도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궁금해 하며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51) 매티 윌콕스 노블 / 강선미 · 이양준 옮김,『노블일지 1892-1934』(이마고, 2010), 40.

52) 류대영,『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62-64. 김사랑, “내한 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25의 인용 참조.

www.kci.go.kr

> 을 만났다. 오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들은 새로운 것과 이상한 풍경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입을 다물 수조차 없이 놀라는 때가 많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우리들이 닭튀김, 토마토 썰은 것, 아이스크림, 케잌을 먹었다는 사실이다.[53]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선 새로운 곳에 도착하였지만, 막상 저녁 식탁에 오른 음식은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미국인 선교사들은 조선인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미국적 삶을 유지해나갔는데, 이런 태도는 ‘이화’라는 교육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여성 선교사인 스크랜튼(Mary F. Scranton, 1832-1909)이 1886년 오갈 데 없는 여자아이 한 명을 받아 키우면서 시작한 이화학당은, 『유희창가집』이 출판되는 1930년 즈음에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화학당의 초기 졸업생 중에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에서 가르치는 인물이 등장할 정도로 인적 자원이 축적된 기관으로 성장해 있었다.[54]

『유희창가집』의 머리말에서 브라운리는 창가의 번역을 담당한 동료로 “김애마 선생, 강종근 씨, 고 정성룡 선생”을 들고 있는데, 이 중 김애마(Kim Emma, 1903-1996)는 1926년 유치원 사범과를 졸업하고 이화에서 교편을 잡은 브라운리의 제자이다. 강종근(1904-1942)은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1925년 감리교계 사립학교인 배재학교, 1928년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다.[55] 1933년 이후 목회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

53)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악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양서원, 1996), 40.

54) 예를 들어, 브라운리의 뒤를 이어 1935년 제2대 이화보육학교 학감을 지낸 서은숙은 대학예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신시내티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으로 각각 B. A.와 M. A.를 취득하였으며, 1931년 귀국 후 다시 모교에서 가르쳤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 (1915-2001)』, 12.

www.kci.go.kr

아, 신학교 졸업 이후 잠시 동안 이화에서 근무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화유치원의 교원과 직원이 미국인 여성 선교사와 조선인 여제자, 같은 교단의 학교를 졸업한 기독교인 남성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매우 배타적인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질적인 면에서, 이화학당의 일원으로 문을 연 이화유치원은 조선사회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누린 이질적인 풍요로움을 공유하였다. 사진으로 전하는 유치원 독립건물의 내부나 어린이들의 활동을 보면[56] 이런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잔디가 깔린 정원에 마련된 식탁에 둘러 앉아 간식을 먹는 어린이들의 모습,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하여 유치원 내부의 계단과 나란히 미끄럼틀을 설치한 설계상의 배려,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 옆에서 즐기는 성탄절 파티 등 이화유치원의 어린들이 경험한 세상은 '작은 미국'이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교사 사회와 이화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이 당시 조선에서 출판되고 사용된 창가집들과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인 유아교육 전문가인 브라운리에게 일제를 통해 조선에 보급된 어린이용 창가는 최선의 수업재료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녀에게는 굳이 조선인의 창작 동요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한 수업재료가 구비되어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유선영은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57]에서 황인종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

55)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search.i815.or.kr 참조. (2011. 8. 15. 검색).

56) 이화여자대학교 편,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since 1914』(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참조.

57)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돌베개, 2006), 278-283.

www.kci.go.kr

는 조선인들이 지니고 있던 ‘아미리가’(亞米利加, 아메리카)에 대한 동경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교사와 미션스쿨, 교회, 일제기간 내내 지배적이었던 할리우드 영화, […] 자유연애의 퍼포먼스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허용된 가장 유용한 ‘근대 이미지들과 감각’의 교과서”였다.[58]

이러한 분석은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고급스러운’ 노래책은 유치원 교육에 종사하는 젊은 인텔리 여성에게 그리고 양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에게 ‘앞선’ 미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훌륭하였다. 누군가가 브라운리의 『유희창가집』과 중앙보육학교에서 출판한 『표정유희창가집』을 나란히 책꽂이에 꽂아두었다면……. 그가 매일매일 떠올렸을 여러 가지 상념이 결코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필자의 경험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58)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 281.

www.kci.go.kr

참고문헌

악보 및 자료집

대한제국학부 편.『(보통교육) 창가집』 제1집. 한국정부인쇄국, 1910.

박봉애 편.『유희창가집』. 이화보육학교, 1933.

부래운 편.『유희창가집』. 이화유치원, 1930.

북타임 편.『마더구스』. 북타임: 지식여행, 2010.

수석조 편.『(소년소녀) 교육유행창가집』. 이문당, 1927.

이상준.『최신창가집, 全』. 박문서관, 1918.

이상준.『(풍금독습) 중등창가집』. 박문서관, 1921.

조선총독부 편.『(보통학교) 보충창가집』. 조선서적인쇄, 1926.

차사백 · 이영보 편.『표정유희창가집 제1편』. 중앙보육학교, 1936.

차사백 · 이영보 편.『표정유희창가집 제2편』. 중앙보육학교, 1936.

Danielson, Frances & Grace Conant. *Songs for little people for use in the sunday-school the kindergarten and the home*. Boston: The Jordan and More Press, 1915.

Dann, Hollis. *First year music: rote songs for kindergarten and first year*.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14.

Long, Sylvia. *Mother Goose*.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9.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논문 및 단행본

김사랑. “내한 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 1884년에서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7.

김수현 · 이수정.『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잡지편 권3 (1930~1932)』.

www.kci.go.kr

민속원, 2009.
김진송.『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김형목. “1910년대 동화정책과 사립경성유치원.”『한국민족운동사학회』28 (2001), 111-147.
김형목. “중앙유치원의 근대 유아교육사상 위상.”『중앙사론』 32 (2010), 105-148.
류대영.『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매티 윌콕스 노블 / 강선미 · 이양준 옮김.『노블일지 1892-1934』. 이마고, 2010.
민경찬.『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1997.
민경찬 외.『동아시아의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송방송.『한국근대음악인사전』. 보고사, 2009.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사회사: 일제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낭만음악』 통권 49호 (2000), 29-14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 2006.
이수정. “일제시대 동아 · 조선일보 음악기사 음악평 (1920~1929).”『민족음악의 이해』3 민족음악연구회, 1994, 385-428.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편.『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94.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편.『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 (1915-2001)』. 에듀엔젤닷컴, 2001.
이화여자대학교 편.『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since 191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정충량.『梨花八十年史』. 이대출판부, 1967.
중대신문사 편.『사진으로 보는 중앙대학교 80년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한국유악교육의 선구

www.kci.go.kr

자) 허길래』. 양서원, 1996.
安田寬(야수다 히로시).『日韓唱歌の原流』. 東京: 音樂之友社, 1999.

www.kci.go.kr

Abstract

Ewha Kindergarten and its *Quality* Songbook:
Looking into Colonial Seoul
through the *Anthology of Yuhui-Changga*

Huh, Jeeyeon

This paper explores educational situations in 1930s colonial Seoul through the *Anthology of Yuhui-Changga* published by *Ewha* kindergarten. First, I examin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colonial Korea and *Anthology of Yuhui-Changga* edited by Charlotte G. Brownlee, a missionary professor of *Ewha*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Then, I compare the anthology with two other anthologies: *Anthology of Yuhui-Changga* (1933) edited by Park Bongae and *Anthology of Pyojeong-Yuhui-Changga* (1936) edited by Cha Sabaek & Lee Bohyung. The two books are differentiated from Brownlee’s for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musical character.

While Brownlee’s book includes many *Mother Goose* rhymes and Europ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s, Korean writers’ books contain lots of songs characterized by the style of songs found in the Japanese army. The former excludes Korean and Japanese composers’ songs, but the latter includes some of them. Korean writers’ books share some common traits with the music textbooks and anthologies of *Changga* distributed in the same period. Thus, Brownlee’s book shows uniqueness.

Therefore, it’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education of Ewha is located in different context from the general educational situation in 1930s colonial Seoul. The exclusiveness of missionary society and the specialty of Ewha, which was established by women missionaries, are important factors to

www.kci.go.kr

which the differences may be attributed.

Keywords: *yuhui-changga*, Anthology of *Yuhui-Changga*, anthology of *changga*, *Ewha* kindergarten, modern education, missionary school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0월 31일	2011년 11월 5일~23일	2011년 12월 1일

www.kci.go.kr